

# 다양한 파트너 브랜드 협업으로 성료

‘제10회 무주산골영화제’ 약 30여개 문화 파트너 브랜드와 풍성하게 마무리

아름다운 전라북도 무주에서 펼쳐진 초여름의 낭만 영화제, ‘제10회 무주산골영화제’(2022. 6.2.~6.6.)가 약 30여개의 문화 파트너 브랜드와 함께 5일간의 영화 소풍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먼저 ‘한국수력원자력 무주양수발전소’는 무주산골영화제 방송광고 후원에 힘을 보탰다. 또한, 무주 ‘나불리조트’는 올해도 나봄상(감독상) 시상금 후원과 함께 영화제 공식 숙소로 운영되어 무주산골영화제를 찾은 게스트들을 맞이했다.

이웃도네리프스타일 브랜드 ‘하이브로우’는 무주등나무운동장 내에 5년째 하이브로우 존을 구성하여 관객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해주었으며, 올해 처음 함께 한 주류복합문화공간 ‘디오니’는 무주산골영화제 10주년 기념 파티와 더불어 영화제 모든 공식 파티 주류 지원 등을 통해 영화인 및 관객들에게 건전한 주류 문화를 전하는데 힘썼다.

아동과 지역사회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굿네이버스’는 영화제 기간 중 키즈스테이지에 놀이존을 구성하여 영화제를 방문한 어린이



제10회 무주산골영화제 파트너 브랜드

관객들이 자유롭게 놀며 영화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6월 6일에는 어린이 플리미켓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3년째 함께 해오고 있는 텐탈케어 브랜드 ‘조르단’은 행사장 내 다양한 형태의 관객 이벤트 물품 지원은 물론이고 영화제 기간 중 관객들을 대상으로 현장 교환 캠페인을 진행해 관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을 이루기도 했다.

‘아빈앤킵퍼니’는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인

‘창’ 섹션에서 상영되는 영화 중 연출을 제외한 분야에서 돋보이는 성취를 거둔 영화의 해당 분야 담당 스태프 또는 배우에게 시상하는 ‘아빈 크리에이티브상’ 시상금을 후원했다.

올해 처음으로 함께 하게 된 프리미엄수입완구 브랜드 ‘나비타월드’는 다양한 완구 제품들로 키즈스테이지를 구성해 가족 관객들의 높은 만족을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동권리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세이브 더 칠드런’은 『당신이 잘되면 좋겠습니다』, 『훈의 시대』 등의 저자인 김민섭 작가와 함께 아동권리를 위한 토크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했다. 이와 함께 영화제 행사 공간에서는 오늘날을 사는 어린이가 어른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담은 ‘어린이가 쓰는 어린이 선언문’과 ‘기후 위기 전시’도 함께 선보였다.

다양한 파트너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10주년을 풍성하게 마무리한 무주산골영화제는 대한민국 대표 낭만 영화제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이루어 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주민들에게 여유롭게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공연에는 33개 팀 164명의 지역예술인이 참여한다. 특히 최근 인기리에 방송된 웹넷(Mnet) ‘스트리밍스 걸스 파이터’에 출연해 상위권 성적을 낸 댄스팀 ‘미스콜리’가 출연해 신나는 댄스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정읍시립합창단은 오는 14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정기연주회 ‘HAPPINESS’를 선보이고, 시립국악단은 17일과 18일 양일간 ‘국악 뮤지컬 생화지애’ 공연을 갖는다.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연지아트홀에서는 24일부터 25일까지 우수 작품 기획초청 공연으로 ‘복 짙은 기린 지피’가 예정되어 있으며, 7월 9일부터 10일까지는 춤과 미음, 놀이를 활용해 언어적 장벽 없이 어린이들의 감성을 두드릴 공연 ‘네네네’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7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 연지아트홀 야외공연장에서 (사)정읍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상설 길거리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에서는 음악, 무용, 국악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이 펼쳐지며, 다양한 공연 팀이 각기 색다른 콘셉트로 그동안 간고닦은 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작지만 일찬 공연을 준비했다”며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시민들의 지친 일상에 활력을 주는 행복 에너지가 될 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공연정보는 시청 홈페이지 ‘공연/행사’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풍성’

샘고을 버스킹 · 댄스 · 국악 뮤지컬 등 다채롭게 진행

정읍지역 곳곳에서 가족과 연인, 친구 등과 함께 문화와 예술을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년여 만에 전면 해제됨에 따라 지역 문화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행사 등이 시작되면서 시민들의 문화 갈증이 다소 해소될 전망



정읍지역 곳곳에서 가족과 연인, 친구 등과 함께 문화와 예술을 만끽할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이다. 먼저 시는 10일부터 19일까지 4차례에 걸쳐 지역예술인이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예술 기획공연 ‘세대공감 찾아가는 샘고을 버스킹’을 선보인다. 공연은 10일 달하다리, 12일 각시다리, 17일 미소거리, 19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펼쳐지며, 이와 함께 7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 연지아트홀 야외공연장에서 (사)정읍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상설 길거리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에서는 음악, 무용, 국악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이 펼쳐지며, 다양한 공연 팀이 각기 색다른 콘셉트로 그동안 간고닦은 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작지만 일찬 공연을 준비했다”며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시민들의 지친 일상에 활력을 주는 행복 에너지가 될 수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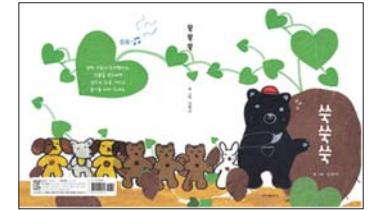
자세한 공연정보는 시청 홈페이지 ‘공연/행사’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김형미 작가, 그림책 ‘쑥쑥쑥’ 출간

친구끼리 서로 돋고 나누면서 성장하는 이야기 담아

김형미 작가가 친구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동화 ‘쑥쑥쑥’을 출간했다. 이 책은 친구들에게 장난을 많이 치는 반달이가 친구들의 소중함을 알고 친구들에게 사과하고 우정을 나누는 그림책이다.



그림책 ‘쑥쑥쑥’

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어린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이 책을 썼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그림은 바탕 한지에 색한지를 끼어붙이고, 그 위에 그리고 색칠을 해서 완성했다.

친구들의 회를 풀어주기 위해 고구마 밭을 다시 가꾸는 반달이는 한번도 해보지 않은 일어서 고구마를 모두 쪘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두더지의 안경을 찾아주면서 두더지와 친구가 되고 두더지의 도움으로 고구마 농시를 잘지어 친구들에게 깜짝 선물을 하게 된다. 반달이의 진실과 우정어린 사과를 받고 친구들은 반달이와 함께 노래 부르며 모두 같이 힘을 모아 고구마를 쑥쑥 뽑았다.

김형미 작가는 “발성을 부리지만, 지혜롭게 사과도 할 줄 알고 서로 돋는 즐거움도 알아가는 반달이를 통해 친구끼리 이해하고 도와주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

/장은성 기자

## ‘제52회 김제미술협회전’ 70명 작가 작품 전시

2022년 제52회 김제미술협회전이 11일부터 17일까지 김제미술협회(지부장 임영하) 주관으로 김제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김제미술협회전은 52년간 이어온 명성 있는 정기전으로 70명의 김제미술협회 회원들이 참여하여 한국화, 민화, 서예, 문인화, 서양화, 조각, 공예 7개 부문으로 나누어 다양한 미술 분야를 한자리에 선보이는 자리다.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작품 발표의 장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시민들이 작가들의 새로운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영하 지부장은 “코로나19로 지역 문화 예술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음에도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많은 미술인과 시민들이 교감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김제지역 미술 역사를 되돌아보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태 기자

## 전주문화재단, ‘창작예술학교’ 참여 예술인 모집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간 ‘2022 창작예술학교’에 참여할 예술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창작예술학교’는 교육하는 예술가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2018년부터 5년째 매년 15명 내외의 교육하는 예술가를 양성해 왔다. 특히 참여 예술인에게는 각자의 예술 활동을 연계해 생활권에서 시민과 만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한다.

도내 거주하는 순수예술분야 현업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나이와 학력은 무관하다.

교육과정은 1단계 연구·기획 아카데미, 2단계 콘텐츠 개발 및 시연, 3단계 현장실습 순서로 구성됐다.

한편 신청은 재단 및 팔복예술공장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단 예술놀이팀(070-7711-82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